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3월부터 규모별 보육교사 맞춤 지원...지원사업 통합 재구조화 비담임교사 지원 33곳→100곳...소규모 200곳엔 대체교사 파견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를 선언하고, 보육교사 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편·추진하기로 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4일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삼고,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담임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등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 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당수 어린이집에서는 안정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비담임교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현상 의견을 수렴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의 기준과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33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100개소로 확대한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담임교사 공백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이다.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5명 이상 어린이집 가운데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1명 또는 없는 어린이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사)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아동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비담임교사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또 어린이집 560여곳에는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을 직접 채용하거나 보조(연

장) 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월 총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을 운영하며 정월의 50%를 충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특히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200여개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 파견 등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분리 운영하던 대체교사 파견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지원 계획을 이달 중으로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2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 지원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가 확대되면 병가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 노인일자리 올 6만4000개 공급

전년보다 7000개 늘어...보수도 월 2만~4만원 인상

전남도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 역대 최대 폭인 7000개를 확대한 6만 4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는 노년층의 다양한 경력과 경력 등 상황에 맞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정서 지원, 공동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일자리다. 참여자에게는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된 월 29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노인의 활동역량을 활용해 취약계층 전문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하는 일자리다. 지난해보다 4만원 인상된 월 76만원을 받는

다.

민간형은 ▲실버카페, 특산물판매, 영농사업, 식품제조 등 시장형 사업과 ▲주유원, 경비원, 청소, 미화원 등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된다. 급여는 근무시간,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이밖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30여개소)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개소당 3000만원) 지원 ▲어르신 생상품 판매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도 발굴해 지원한다.

이상식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축산물 수출 확대 총력

홍콩 판로 확대 등 유통 체계 다변화...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전남도가 전남산 고품질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통 체계를 다변화해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급락에 대비하는 한편 전남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데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육가공업체 (주)동명축산의 돼지고기 가공공장 등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2022년 154t(1800마리·9억원), 2023년 176t(2200마리·약 11억원)을 수출했으며, 최근 홍콩 거래처를 추가 확보해 돼지고기 수출 물량을 올해부터 연간 250t 이상까지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냉장 지육으로 돼지 전 부위를 수출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한우고기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홍콩 수출

도축장이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본격 가공됨에 따라 (주)동명축산이 2023년 기준 홍콩 거래처와 비선호 부위인 목심과 앞다리(냉동) 연간 30t 규모 신규 계약을 했다.

현재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진행 중인 홍콩 수출 가공장 등록까지 완료되면 본격적인 한우고기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축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전남산 축산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올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남도 축산물 수출협의체로 구성된 도내 광역브랜드 및 축산물 가공업체(한우·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포장재 구입비 등 소요 비용을 해당 연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겨울에도 초록초록 수백종류의 다육식물과 허브식물이 가득한 광주시 남구 원산동의 한 식물농원을 찾은 시민들이 겨울의 추위를 잊은 채 초록식물이 주는 안정감을 만끽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설 명절 앞 132곳 안전 점검

광주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여객시설, 목욕탕 등 132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 자치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소화 장

비, 방화구획, 피난시설, 대피로, 전선 배선, 누전 차단기 등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기, 소방, 가스 등 분야별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합동 점검반은 단순·경미한 사항

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우면 시설 관리주체에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설을 앞두고 광주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미리 없애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상점 특화해 ‘전통 시장 살리기’

전남도,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19개 시장 맞춤 사업 추진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시장경쟁패키지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9개 전통시장이 선정돼 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선정된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 시장 육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 1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국비 14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총 2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5억4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6개소 ▲시장경쟁패키지 지원사업 17개소 ▲지역상품전시회 1개소 ▲민영방승을 이용한 전통시장 홍보 1개소 등이다. 6개 시장은 2개 분야에 선정됐다.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지원 등 상인회가

상관별 특성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시장경쟁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6개소가 늘어난 17개소가 선정됐다. 첫걸음 기반 조성, 디지털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는 각각 2개소씩 선정됐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형사업에 선정된 고흥전통시장은 지역 특산물인 생선을 이용한 숯불어락을 주제로 야시장을 운영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밤이 즐거운 전통시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올해 처음 디지털 전통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된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은 온라인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배송전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등 대면 판매 중심으로 운영돼온 시장 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정가 4,000원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